

전춘성 진안군수 재선 도전

무주군, 재택치료 관리체계 강화

“문화관광 메카 · 교육 · 청년 정책 · 복지 증진으로 행복한 진안 만들 것”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1지방선거에서 진안군수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수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1년여의 행정 공백과 함께 극심한 갈등과 분열,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겪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진안군민의 귀중한 선택으로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군정 공백을 회복했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내편 내편 나누어 차별하지 않고, 겸손함과 소통으로, 통합의 군정을 이끌었기에 몇 차례 진행된 군수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주신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자부하며 군수에 당선되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예비후보는 "진안을 문화관광 메카로 만들겠다"며 "진안은 마이산, 운장산을 비롯해 운일암, 반일암 같이

물 맑고 깊은 계곡이 많은 청정지역과 전북도민과 충남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와 함께 백운면의 지역권산림치유원을 연계하여 진안고원을 전라북도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교육 및 청년 정책과 복지 증진을 통해 더 젊고 행복한 진안을 만들겠다"며 "진안은 학생이 없어 폐교와 학교 통폐합을 고민 하고 있어, 교육청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진안형명품학교'를 만들어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시대를 대비하도록 하겠다. 학생들의 마음껏 뛰놀며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자랑스런 남치는 화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로컬푸드 꾸준한 성장세 주목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21%

진안군 로컬푸드(전주 덕진구 호성동 소재)가 코로나19 확산과 동일 상권 내 대형마트 및 식자재마트 입점에 따른 경쟁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업 확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15일 올해 1분기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의 총매출은 20억원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의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분석에 따르면 채소류, 과

일류, 가공식품류 모두 10% 내외의 고른 상승폭을 보였으며, 잡곡, 향신료, 달걀 등의 매출은 30~60%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달걀의 경우 당일 납품된 물량이 거의 대부분 당일 소진되는 만큼 신선함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형 속에서 면역력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잡곡과 향신료의 판매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진안로컬푸드 총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진안고원산 육류는 지방이 적고 육질이 조밀할 뿐

아니라 맛과 식감이 뛰어나 1분기 20% 매출 상승과 더불어 직매장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진안 로컬푸드는 동일 상권 내 대형마트 등이 잇달아 새로 개장하는 경쟁 상황에 속에서도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매출의 90% 정도가 농가소득으로 환원되는 만큼 지역의 중소농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푸드플랜 구축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군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충북 정경순 선생 제례봉행 거행

장수군이 정유재란 당시 장수향교를 지킨 충북 정경순의 희생 정신을 본받고 이를 기리기 위한 제례를 지난 15일 향교 유립,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장수향교(전교 육동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제례는 이희성 장수군 부군수를 비롯해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장수향교 유립회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예년의 제례봉행에는 유립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이뤄졌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50여 명의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제례에서는 이희성 장수군 부군수가 초헌관을, 김용문 장수군의회의장이 아헌관을, 한병태 장수문화원장이 종헌관을 맡아 제례식을 거행했다.

충북 정경순은 임진왜란 당시 향교 내 문묘 지킴이로 장수에 침입한 왜적이 문묘에까지 이르자 문을 굳게 닫고

"민약 문에 들러거든 나의 목을 베고 달라"고 호통을 쳐 장수향교를 지켜낸 인물이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애적들은 본성 역물범(本型域勿犯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니 침범하지 말라)이라는 쪽지를 남기고 스스로 물러나 장수향교가 불에 소실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이에 1846년(조선 현종 12년) 정주석 장수현감이 정경순의 거룩한 기개를 이어받기 위해 '호성충북정경순수명비(護城忠北正敬孫名碑)'를 세웠으며, 군에서는 장수에서 절의를 지킨 3명(長水三節)중 한 명으로 그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 제례봉행을 거행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고위험집중관리군 · 건강모니터링 자가치료키트 전달 · 약배송 운영

무주군은 정부의 코로나19 일상의료 체계 전환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방안에도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재택치료 관리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중 고위험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응급상황 즉시 대처 및 노령 층 관리를 위해 1:1 전담공무원을 매칭, 1일1회 건강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가치료키트 전달, 약 처방 시 집까지 약 배송 등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는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처방 약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주군 여건상 고령층이 많고 자동차가 없는 확진자가 많아 약 처방 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배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0세 미만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치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상담·처방을 받아야 한다.

이에 무주군은 일반관리군의 안전한 재택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1일1회



무주군은 정부의 코로나19 일상의료 체계 전환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방안에도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재택치료 관리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대면 진료 시 예약서비스 제공과 진료이후 약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 관내 비대면 진료기관 휴진으로 진료가 힘든 휴일에 보건의료원 공중보건과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김미화 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엔데믹 단계로 조정되기까지 재택치료 관리와 지역 내 확산 방지 등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상전면 금지마을, 노란 유채꽃 '활짝'

진안군 상전면(면장 김요섭) 금지마을에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어 봄나들이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금지마을 유채꽃밭은 15ha 면적으로 전년보다 1ha를 추가로 식재하였으며, 모든 마을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조성하여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유채꽃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과란 용담호와 어울어 진 노란 유채꽃 물결은 말 그대로 황금색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해마다 봄이 되면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올해는 먹거리 판매를 통하여 관람객의 입맛과 즐길거리를 동시에 채워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과 관람객들에게 휴식과 삶의 위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홍보 진행

무주군은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방배동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무주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상담과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예비 귀농귀촌인 심층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다.

이날 현장에서는 무주군 귀농귀촌 담당공무원과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멘토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비롯한 유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귀농귀촌 상담이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내 인생의 톤키호테', 오후 3시 부터는 '고향이 좋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틀째인 19일에는 10시 30분 귀농귀촌 상담을 시작으로 무주군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무주군 귀농귀촌팀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소소한 행복! 무주'라는 내용으로 귀농귀촌 정착 사례 및 질의 응답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가족센터 왕초보 컴퓨터 교실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18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컴퓨터와 친해지고 싶은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왕초보 컴퓨터 교실을 진행한다.

무주군은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무주군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적어 지역의 욕구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른 욕구를 반영하고자 무주군가족센터에서는 왕초보 컴퓨터 교실을 평일 저녁시간대에 편성함으로써 직장인 및 농업경영인 등 지역민의 높은 호응과 더불어 수강신청이 쇄도했다.

왕초보 컴퓨터 교실은 전년도에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무주군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에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A반은 선주민 대상, B반은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2개 그룹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왕초보 컴퓨터 교육을 비롯한 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이용은 전화(063-322-113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촌인문학강좌 상생아카데미 개최

진안군과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월 1회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농촌인문학강좌 상생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진안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첫 번째 강좌에는 '섬진강', '그 여자네 집'의 다수의 시집을 저서한 김용택 시인이 나선다.

이어 5월 20일 박창기 메타브랜딩 대표, 6월 16일 송만규 화백, 7월 21일 기노채 하우징플랫폼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 강좌가 예정돼 있다.

농촌인문학강좌는 진안문화회 집(진안읍 대성길 5)에서 매월 오후 3시에서 5시에 진행되며 입장은 매 강의별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